

농촌지역 공부방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방학중 운영되는 공부방 사례를 중심으로)

2004년 9월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 전공

오봉욱

목 차

국문초록

I. 서론 1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 제 2 절 연구문제 3

II. 이론적 배경 3

- 제 1 절 농촌지역사회 공부방 3
 - 1. 농촌지역사회의 이해 3
 - 1) 농촌지역 가족구조의 변화 4
 - 2) 농촌지역 아동의 특성 및 청소년의 문제행동 4
 - 2. 농촌지역사회 공부방 5
 - 1) 공부방의 일반적 개념 5
 - 2) 공부방의 기능과 역할 6
 - 3) 공부방 프로그램의 내용 8
 - 4) 공부방에 관한 선행연구 9
- 제 2 절 조사된 공부방 실태 12
 - 1. 조사대상지역 12
 - 2. 조사된 배움터의 일반현황 13
 - 1) 시설형태 및 운영 13
 - 2) 인력현황 14
 - 3) 재정상황 15
 - 4) 이용상황 및 프로그램 현황 15
 - 5) 운영상의 문제점 16
 - 6) 배움터의 진행으로 인한 강점 16

III. 연구방법 17

- 제 1 절 조사대상자 및 조사도구 17
- 제 2 절 자료수집 방법 및 자료분석 방법 18

IV. 조사결과 및 분석 18

- 제 1 절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8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8

- 2. 공부방에 참여한 아동, 학부모 설문조사결과 19
- 3. 본 연구자의 농촌지역 공부방 활성화를 위한 방안모색 22

V. 결론 및 제언 23

- 제 1 절 조사결과 요약 23
- 제 2 절 사회복지적인 함의 25
- 제 3 절 제언 및 연구의 한계 26

참고 문헌 28

부 록 30

- 1. 설문지 30

표 목차

- < 표 1 > 배움터 일정 16
- < 표 2 > 캠프 및 마을잔치 일정 16
- < 표 3 > 설문지 구성 18
- < 표 4 > 응답자의 일반적인 사항 19
- < 표 5-1 > 응답자의 설문조사 결과 20
- < 표 5-2 > 응답자의 설문조사 결과 21

농촌지역 공부방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방학중 운영되는 공부방 사례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2001년 1월 시작되어 현재까지 충북 괴산군 청천면 이평리에 위치한 솔피농장에서 매 방학때마다 대학생들이 마을주민과 함께 지역아이들을 위한 배움터를 진행하면서 경험한 내용과 이번 7회 배움터에 참여했던 교사, 학부모, 아동에게 배움터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묻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에 진행될 배움터를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조사하게 되었다.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으로 아동 총 30명중 초등학생은 23명(76.7%)이며, 남학생이 16명(53.3%), 여학생이 14명(46.7%)으로 남녀 성비율이 비슷하였다. 아이들이 배움터를 알게 된 경로는 아동과 학부모 모두 '솔맹이 배움터 선생님들의 홍보로'라고 학생 13명(43.3%)이고, 학부모 5명(50%)의 높은 수치를 보였다. 배움터에 참여하게 된 주된 이유로 아동과 학부모 모두 '가면 재미있고 즐겁기 때문에'라고 학생 18명(60%)이고, 학부모 5명(50%)의 높은 수치를 보였다. 배움터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아동과 학부모 모두 '매우 만족한다'라고 학생이 25명(83.3%), 학부모는 8명(80%)을 보였다. 만족한 이유에 대해 선생님들이 친절하고, 재미있으며 친구들과 방학때도 함께 놀 수 있고, 선생님들과 다양한 놀이와 게임을 할 수 있어서 좋고, 맛있는 간식과 급식, 혼자하기 힘들어했던 방학 과제물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만족한다고 서술하였다. 이에 반해 '불만족하다'라고 대답한 이유는 집에서 배움터까지 오고가는 데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이지만 현재 배움터에서 아이들을 위해 통학차량은 운행하고 있지 않다. 기간에 대한 의견에는 아동과 학부모 모두 '기간이 더 길었으면 좋겠다'라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농촌지역에 배움터외의 아이들을 위한 놀이문화와 학습문화를 제공하는 곳이 거의 없고 배움터에 대한 욕구가 매우 강함을 알 수 있다. 배움터 형식에 대한 의견에는 아동의 경우 '캠프를 더 오래했으면 좋겠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18명(60%)의 높은 수치를 보였는데 이는 농촌지역 아동의 경우 집을 떠나 친구들과 함께 캠프에 참여하는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배움터에서 진행되는 캠프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반대로 학부모의 경우 '공부방을 더 오래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에 6명(60%)을 보였는데 이는 과외 학습이 불가능한 현실에 배움터에서 자녀에 대한 과외학습을 더 길게 진행하기를 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에 진행될 배움터에 대한 의견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아동의 경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참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의견이 많았고, 이에 반해 학부모의 경우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일 경우에는 손으로 직접 만드는 놀이를 많이 하면 좋겠다는 의견, 배움터에 참여했

던 졸업한 언니, 형들이 도우미로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배움터에 바라는 점에 대해서는 준비과정부터 진행과정까지의 사항들을 꼼꼼하게 기록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농촌지역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 지역아동센터(공부방)에 대한 법적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즉 지역별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시설 설치기준의 융통성 부여, 교사 인건비의 명확화, 안전관련 보험제도의 마련등의 제도가 필요하다. 둘째, 자원교사의 전문성 및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부방 자원교사확보를 위해 군복무 대신 공익근무를 활용하거나 면접을 통한 공공근로를 활용한다면 농촌지역에서의 부족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공부방 교사들의 전문성을 위해서는 특히 아동발달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재 교사로 활동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강화하고 세미나, 워크숍 등의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과 자원연계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위한 개발과 지역자원의 개발과 현황조사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무엇인지 컨설팅할 수 있는 연계전문 인력의 확보를 위한 사회복지관련 기관과 민간단체에서는 관심이 요구된다.

2001년부터 지금까지 농촌지역에서 아이들과 배움터를 만들어가면서 갖게된 삶의 기쁨을 언제까지나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농촌복지실현을 위해 힘쓰고 싶다.

I.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산업화 이후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간의 경제수준과 삶의 질의 격차가 심해지면서 최근 FTA(자유무역협정)에 의한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에 의해 시장개방 폭이 확대됨으로써 값싼 해외농산물의 수입 공세에 농산물 수요가 위축되고, 이는 점차 농가의 부채 증가와 농촌인구의 고령화, 교육·의료·복지체계의 미흡 등 농촌지역주민의 복지수준이 갈수록 낙후되어감에 따라 이농현상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IMF 이후로 농촌의 빈곤화가 심화되면서 농가의 부채증가와 지역산업의 취약, 농산물 가공이나 유통은 기업과 상인들이 독점하여 소농을 하는 농가의 경우 삶을 유지해 나갈 방법이 없어, 영농에 뜻을 가진 유능한 농촌 젊은이들은 도시로 떠나 탈농 현상은 가속화되면서 농업인구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농업인구의 감소가 농업구조조정의 긍정적 효과로 볼 수 없는 것은 이농인구가 주로 청·장년층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회문제로

인해 농촌지역은 도시지역과는 달리 인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복지적 혜택이 열악한 상황에서 미래를 이끌어갈 농촌지역 아동의 환경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농촌지역의 경우 방과후 어른의 보호없이 혼자 남겨진 아동들은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과도한 TV 시청이나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대인기피 현상과 도시문화와는 달리 문화생활을 누릴 만한 놀이문화와 놀이공간의 부족과 마땅한 아동교육기관과 시설이 없기 때문에 도시지역 아동과 비교시 농촌지역 아동들은 상대적 빈곤을 느끼게 됨으로써 아동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그 이유는 도시지역 아동들보다 많은 위험요소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농촌지역 아동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결핍,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적인 생활사건, 또는 부적절한 양육 등과 같은 생물학적, 환경적 위험요소에 노출되어 아동의 발달에 부적절한 상관관계를 가지게 된다.

아동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문화적 자극을 받으면서 사고의 폭을 넓혀야 하며, 유전적으로 훌륭하게 타고났어도 아동을 둘러싼 물리적, 사회문화적 환경이 좋지 못하면 그 사람의 잠재능력을 발달시키지 못하게 된다. 이는 곧 사회적응의 실패를 가져와 자신과 타인을 비난하는 사고와 태도를 갖게 되는 등 사회적 능력의 부족현상으로 나타나고(허춘자, 2002),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교사와 또래집단이라는 두 사회생활 영역이 확대되어 자신에게 위험요인 혹은 성장요인이 되는데, 아동이 접하는 위험요인을 줄이고 성장요인을 강화시키는 학교교육을 제외한 외부적 차원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다(권효정, 2001).

농촌은 영세농이 대부분이며, 결손가정이나 조부모가정의 아동이 많고, 부모들이 영유아들을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보육시설이 아닌 논이나 밭 등의 일터로 데리고 가게 됨으로써 위험에 방치되는 등 아동들의 양육 문제를 발생시켜 영유아에 대한 보육뿐만 아니라 방과후 아동보육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육정책은 영유아보육에만 중점을 둔뿐 방과후 아동보육에 대한 복지적 서비스는 미비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자녀를 위한 방과후 아동보육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강조되고 있다(곽동영, 2000; 임상희, 2002).

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농가자녀의 55.3%가 방과후 혼자 공부하고, 학원이나 개인과의 이용 학생비율이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농촌지역 학생들은 도시지역 학생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학업성취도를 보여주면서(김성수외, 2000) 지역간 학생들의 학력격차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농촌지역 아동의 놀이형태나 생활태도의 사회성은 높지만 학교에서의 학습의욕이나 또래들과의 교우관계의 사회성은 낮고(김숙중, 1998), 도시와 농촌지역의 학령기 아동의 협동성, 책임감, 지도성 요인을 비교한 결과 협동성의 경우 농촌지역이 도시지역과는 달리 지리적인 특성상 또래들간에 자주 만날 기회가 적고, 지도성의 경우 도시지역이 농촌지역보다 생활수준이 높기 때문에 농촌지역 아동보다 도시지역 아동이 높게 나타났다(임장희, 1999), 이는 결국 도시지역 아동이 농촌지역 아동보다 사회적 능력이 높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학령기 아동의 발달시기는 일생을 통해서 보면 생활습관과 학습습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

기이고, 습관의 형성과 함께 아동이 신체적, 지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성장·발달하는 시기이다. 특히 정서의 발달은 인간성장 발달의 원천이고, 정서적 경험은 아동의 성격발달에 영향을 주며, 사회성 발달에 있어서도 아동들이 집단적으로 행동하기를 좋아하고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하는데 열중하게 되는 시기이므로 효과적인 지도가 필요하다(임상희, 2002:3 재인용).

그러나 열악한 환경속에 있는 농촌지역 방과후 아동보육을 보면 사회의 무관심으로 잘 되지 않는 실정이며, 이와 같은 환경에 살고 있는 아동일수록 가정에서 생활교육, 인성교육과 같은 자녀교육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농촌지역 아동은 방과후 지도 및 보육지도가 이루어지는 공부방에 보내어 아동들을 보호와 지도하며, 학습을 보완해야 하며(김정자, 2000; 이주리, 2001), 아동에 대한 교육·문화 복지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지능력 향상과 생활교육, 공동체 교육, 학습지도와 문화활동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능력을 발달시켜야 할 것이다.

공부방은 학교와 같은 인지적 발달에 치중하는 학습보다는 정서와 행동 발달을 강조하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려고 노력한다(김주현, 1995). 이는 성적위주의 교육방식을 추구하는 공교육의 한계에서 벗어나 자연친화적이고 공동체적인 삶의 전수를 교육목표로 학습자 중심의 비정형적 교육과정과 다양한 교수방식을 추구하여 원만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로 간주한다. 이는 농촌지역 아동의 사회적 능력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된다(어효은, 2001).

농촌 지역주민과 같이 사회에서 소외받기 쉬운 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 부족과 도시지역에서 실시되는 사회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을 농촌지역에 확산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했음(조홍식, 2003)을 감안할 때, 정부가 농촌 및 산간 지역 학생들을 위해 공부방 운영을 위한 환경을 마련해 준다면 농촌 학생들의 교육적·문화적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여성복지, 지역복지 등 다양한 기능을 함으로써 공부방은 농촌지역 복지센터로서의 역할까지 하게 된다. 이는 곧 농촌지역사회 복지실현을 위한 방안이 될 것이다.

2004년 2월에 아동복지법 개정 법률안 중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 공동생활가정과 지역아동센터(공부방)가 추가되었으며, 그동안 도시빈민지역 공부방의 실태조사, 활성화 방안 및 효과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농촌지역 공부방의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농촌지역사회에서 방학때 진행된 공부방 운영에 대한 아동과 학부모의 의견조사를 통해 차후 진행될 지역아동센터(공부방)의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문제

연구문제 1. 농촌지역에서 방학중 운영중인 공부방 운영에 대한 학부모와 참여아동의 전반적인 의견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이를 기초로 농촌지역에서 공부방을 운영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제 1 절 농촌지역사회 공부방

1. 농촌지역사회의 이해

농촌(rural area)은 촌, 시골, 향리 등의 용어로서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적인 권역이라고 볼 수 있다. 농촌사회(rural society)란 농촌지역을 생활 근거지로 하여 살고 있는 인간집단을 지칭하는 말이다. 즉 농촌 지역사회(rural community)란 자연부락을 공동생활권의 단위로 하는 촌락공동체적 성격을 가진 공통이해관계 아래 만들어진 공동체 사회라 말할 수 있다(정지웅·최병익, 1996).

80년대에 들어오면서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공업화·도시화로 농가인구는 88년에는 7,272천명, 98년 4,400천명, 99년에는 4,210천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되면서(농림부, 1999) 60세 이상의 노령 인구비가 증가하게 되고, 농업 노동력은 청년층이 아닌 노령화, 부녀화되었다(이재우, 2001). 특히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한 이농현상은 초·중등학교의 자녀 및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인구 감소로 농촌 지역사회가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이농현상의 주된 원인은 경제적 요인이지만, 다른 면에서는 자녀교육에 대한 걱정으로 농촌을 떠난다. 이에 대해 영농후계자로 선발된 농민 251명을 대상으로 농촌생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농촌생활의 가장 큰 문제로 자녀교육의 불리(42.5%)", 노동력 부족(17.0%), 사회인식(13.2%) 순으로 나타나 교육문제가 중요한 관심 부분임을 알 수 있다(한겨레신문, 1996). 또한 이재우(2001)의 남녀 16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남녀 모두 농촌 가정이 안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자녀교육, 경제적 곤란, 가족의 건강 순으로 나타났다. 임혜영(1999)의 “귀농자의 적응과 복지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귀농자의 자녀교육 만족도에서 보면 54.6%가 자녀교육이 어렵다고 대답했으며, 자녀교육에 불만이 없다면 농촌 생활 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자녀에 대해 교육수준과 교육 만족도를 높여 준다면 이농자 수도 줄고, 농촌으로 다시 돌아오는 귀농자 수도 증가하여, 농촌지역의 활성화와 지역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이재우, 2001). 결국 농촌지역 학부모에게 있어 아동에 대한 교육복지 실현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1) 농촌지역 가족구조의 변화

농촌지역 청·장년층 인구의 이농으로 가족주의의 쇠퇴, 핵가족화 등의 변화는 가족 구조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변화순·원영애·최은영(1993)의 농촌가족 변화에 관한 연구에서는 산업화가 농촌지역 인구의 감소를 가져오고 농촌지역 인구의 감소는 농촌지역 가족의 노령화를 가져

와 1960년 이후 30년간 농촌지역의 가구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해체기”에 도달한 가족이 전체의 37.7%를 차지하여 도시지역의 18%보다 두 배가 넘고 1990년 60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도시지역은 5.8%이고 농촌지역은 13.8%로 농촌지역이 2배가 넘어 농촌지역 가족의 노령화가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김재철, 1997:8 재인용).

2) 농촌지역 아동의 특성 및 청소년의 문제행동

농촌의 문화시설은 도시에 비해 낙후되어 있어서 아이들은 교육기관이나 종교시설 등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유치원이나 학교가 멀고 교통편이 많지 않아서 학교까지 친구들과 함께 걸어 다니며 어울리고 집주위에 있는 자연 지형지물에서 노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동이 학령기가 되면 교육에 대한 도시지역과 같이 부모들은 좋은 성적과 공부할 것을 자녀에게 요구하지만 학습지도를 해주거나 조언을 해주지 못한다. 가족관계에 있어서도 중·고등학교로 진학시 형제자매간의 관계형성이 일정시기가 되면 농촌지역을 떠나 헤어지기 때문에 원만한 관계형성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특히 교육문제로 인해 학교를 떠나는 아동이 증가하면서 자신과 어울리던 친구들과의 헤어짐도 늘어나고 학교에 남는 소수의 아동이 작은 규모의 또래집단을 형성하게 되면서 부모 혹은 선생님과 상담을 통한 고민해결보다는 소수의 친구들과 의논하는 것을 한정되어 대화상대가 부족하게 되고, 많은 학생들이 있는 도시학교에서의 생활에 적응을 못하거나 성적이 부진하게 된다.

김성수 외(2000)는 문제행동 경험에 대한 조사결과 농어촌 청소년들은 음주(67.7%), 음란비디오 시청(52.4%), 흡연(48.1%), 음란사이트 시청(46.0%), 기물파괴(29.5%), 도박·노름(27.6%), 폭력행위(27.1%), 성관계(24.3%), 돈·물건 훔치기(18.4%), 패싸움(17.0%), 가출(15.8%) 등 모든 부분에서 대도시 지역의 청소년들에 비해 문제행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지역 청소년의 여가활동에 대한 김정임(2001)의 연구를 보면 청소년들은 정적이며 소극적인 여가활동을 보내는데, 이는 학교에서의 규제나 단속, 시설부족, 가족의 이해부족, 사회단체나 어른들의 비협조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가시간에 유해환경의 접촉 정도를 살펴보면 청소년 주변의 유해환경에 무방비 상태로 광범위하게 노출되어 있고, 이러한 유해요소들은 대부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의 탈선과 비행을 조장하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과 홍보가 필요하다.

2. 농촌지역사회 공부방

1) 공부방의 일반적 개념

공부방은 보호자 없이 방치되고 있는 취학 아동과 청소년 및 저소득층·결손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학습지도와 생활교육, 공동체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열린 교육의 문화공간을 말한다(부스러

기교회·빈민여성교육선교원, 1996)¹⁾. 공부방의 목적은 교육 및 문화활동과 빈곤 퇴치를 위한 공동노력을 통해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돕고, 또한 그들이 가난을 이겨내고 자신의 가정환경의 상실과 결손의 상태를 극복하여 민주 시민으로서 지역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일꾼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데 있다(강명순, 1996; 윤정희, 1999:9 재인용).

1985년 산돌공부방을 시작으로 빈민·공단·농어촌·광산지역 등 아이들의 교육·문화적 복지가 열악한 곳에 사회운동 출신, 학생운동 출신, 사회복지 자원봉사자와 사회변화를 추진하는 종교인들이 독립적으로 여러 빈민지역에 공부방을 설립했다(박문수 외, 1998). 이들은 지역에 대한 애정과 관심, 열악한 사회 환경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과 제도교육에서 소외된 아동과 청소년들에 대한 사랑으로 참교육을 실현코자 공부방을 지역주민과 함께 만들어갔다. 이후 90년대 중반 각 공부방들은 사회적 변화에 지역운동이나 노동운동 등 사회운동의 매개로서 주민 혹은 노동자들과의 접근을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니라 전문성과 독자성을 가지고 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문화·복지운동을 축으로 지역주민과 하나가 되어갔다(이향란, 2000). 또한 1997년 IMF 사태로 전국적으로 빈곤층의 증가로 정부는 ‘저소득층 방과 후 아동 생활지도교사’라는 이름으로 실직 여성들을 대상으로 공공근로자를 지원하고, 결식아동을 비롯한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급식비 지원을 하게 되었다. 공부방은 공교육외의 학습,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과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역문제를 고민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주민대상 프로그램이나 상담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이동욱, 1997). 허인영(2002)의 조사에 따르면 교사 1명을 두고 있는 공부방은 전국 공부방의 52.5%, 이런 공부방을 이용하는 어린이수는 공부방 1곳당 23.8명이다. 또한 매일 급식을 제공하는 공부방이 전체 공부방의 54.2%이며, 남의 건물에 들어가 전세나 월세를 지급하면서 빠듯하게 운영하는 공부방도 39%이다(조선일보, 2004년 3월 17일). 이는 농촌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또한 방과후 아동보육, 방과후 탁아, 방과후 아동지도, 방과후 공부방, 열린 교실 등 비슷한 명칭으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문영지, 2002).

2) 공부방의 기능과 역할

아동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일반적인 문제들은 또래, 부모님 등과의 타인과의 갈등, 자기 자신과의 갈등,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부족, 환경에 대한 이해부족, 기술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등 다양하다. 초등학교 시기는 아동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규범과 사회적 기술을 배워가는 중요한 단계이다. 이 시기에 학령기 아동들이 공부방 경험을 함으로써 어떤 측면에 도움이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농촌지역 아동과 청소년들은 부모의 농사로 인한 장시간의 부재와 신체적 피로로 인해 부모로부터 받는 돌봄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 도시와는 달

1) 부스리기선교회·빈민여성 교육선교원, 『공부방 현황 및 교육활동』, 2, no. 1(1996. 9), pp. 169-170

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받을 기회가 부족하여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교육적 자극을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다. 또한 이들 대부분의 부모는 장시간 야외에서의 노동을 수반하는 부부중심 활동과 부모로부터 학습지도와 생활지도를 받을 기회가 적다. 또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성장함으로써 아동기에는 안전사고의 위험과 청소년기에는 일탈의 위험을 가진 채 살아가게 된다. 농촌지역 환경은 아동에게 인지행동의 낮은 발달, 교육환경의 열등감과 사회문화적 소외감을 초래한다.

따라서 농촌지역 공부방의 일차적인 목적은 도시와 상대적으로 부족한 아동의 보호와 교육·문화적 복지를 제공하여 정서적·사회적 발달을 도모하는 것이다.

방은령(1994 : 42 재인용)은 방과후 아동지도가 초등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방과후 프로그램의 목적을 첫째, 아동이 자신과 남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자기 일을 스스로 하고 공동생활에 적응한다. 둘째, 건강하고 창의적이며 독립적인 민주시민이 되게 한다. 셋째,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책임지며 학교 교육보완과 아동의 욕구 흥미를 충족시키며 활동생활지도로 건전한 사회적, 정서적 발달을 도모한다. 넷째, 학업성취와 가족전체의 건전한 생활을 지원한다. 다섯째, 아동의 안전과 건강, 충분한 휴식제공 균형있는 식사, 간식, 영양식을 제공하며 신체발달을 도모한다. 여섯째, 적절한 조작적, 인지능력, 지적, 예술적, 운동기술 발달을 도모한다. 일곱째, 학교생활 적응 및 공동생활에 필요한 생활습관, 태도형성, 긍정적인 자아 존중감 및 독립적인 자아개념을 확립한다를 두었다. 이처럼 학교생활 못지않게 중요함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공부방의 기능은 학교에 다니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문화·복지를 제공하는 곳으로 방과후 시간에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와 교육하는 것으로 학교교육과 가정교육의 보완적 기능을 지니고 있다(이향란, 1996).

공부방의 역할을 살펴보면 첫째, 공부방은 아이들에게 학습이외의 특별활동등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의 정서 및 사회성 발달을 돕는 역할을 한다. 둘째, 공부방은 지역 아동, 청소년의 학습지도를 통한 학업성취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셋째, 공부방은 아동의 보호와 상담의 역할을 한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학교 수업시간이 짧기 때문에 일찍 집으로 돌아오지만, 이들 부모는 아직 일터에서 귀가 전이므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곳이 필요하다.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의 경우 부모와의 대화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동·청소년기에 겪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절한 상담 대상이 필요하다. 넷째, 공부방은 지역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을 한다. 공부방은 지역 아동, 청소년을 위한 교육활동만이 아닌 아이들의 부모와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해 해결점을 찾기 위해 지역 주민들과 협력하는 지역복지센터(Community welfare center)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역할은 지역마다, 각 공부방의 역량에 따라 차이가 있다(김정희, 2001). 즉 공부방은 저학력 아동에게는 부모를 대신하여 보호와 방과 후 학습지도를 하고, 학력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외의 시간에 보호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의식을 함양시키도록 노력뿐만 아니라 진로·교육·이성·교우·장래문제 등에 관해 상담을 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한다.

아동의 권리 즉 아동의 생존권, 복지권, 발달권, 교육권, 학습권의 다섯가지 권리들을 실현시켜 주는 매개체가 가정, 학교, 지역사회 공동체이다. 그러나 현재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한 가정기능 약화, 경쟁 위주의 공교육 강화로 인하여 학습 부진아에 대한 교육소외, 지역공동체성 파괴, 세계화로 인한 계층간 지역격차의 심화로 인해 이러한 권리를 확보하기란 쉽지 않은 현실이다. 공부방은 아동의 권리를 실현코자 만들어진 것이며, 아동·청소년의 교육기능과 지역주민 운동차원에서의 공부방의 기능으로 광의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구경모, 2001). 또한 지역 사회 안에서 아동을 포함한 생태 체계적(eco-system) 환경을 고려한 가족, 집단, 지역사회의 통합성을 원칙으로 하면서, 자선적, 온정적 내용으로 빈민계층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지역중심의 보편적인 아동서비스로 확대 전환하고, 복지적 기능으로 아동 보호의 역할, 가정의 지원 및 보상의 역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기능 및 지역주민과 아동·청소년을 위한 문화사업과 의료봉사활동 연계, 지역의 환경미화 등을 하며, 나아가서 아동을 포함하는 생태체계적인 환경을 함께 고려하는 적극적인 지역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장이다(허인영, 2002).

이향란(2000)은 공부방의 역할로 하나는 아동보호, 사회문제의 예방차원, 가정의 지원 및 보상,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복지측면에서의 역할이며, 다른 하나는 인지적, 신체적, 정서적 그리고 사회적 발달의 균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적 측면에서의 역할이다. 한편 김재환(1996)은 빈민지역 아동·청소년을 위해 공부방은 교육의 역할, 보호의 역할, 정서적 지지의 역할, 비행예방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어효은, 2001).

위와 같이 공부방의 역할을 종합해 볼 때 연구자는 농촌지역의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쏟지 못하는 가정의 보조적 역할, 방과후 아이들이 함께할 수 있는 놀이공간 제공, 공교육의 한계를 벗어난 생태학적·공동체적 대안교육 제공의 역할과 도시와는 달리 사회문화적 소외감을 줄여줄 수 있는 역할 그리고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능력·긍정적 자아상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해야 하리라고 본다. 결국 공부방이 다양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방과 후 교육·복지서비스 기관으로 중심잡기 위해서는 어떠한 프로그램을 갖고 운영할 것인지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3) 공부방 프로그램의 내용

공부방은 가정과 학교의 보완적·보조적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아동의 전인적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되어 가정의 역할로, 또래 집단 공동체로 편안하고 신나는 장소로 인식되고, 아이들의 정서적, 사회적 발달을 돕고, 아이들의 잠재력과 창의성이 자유롭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박사라, 2000). 현재 우리 사회는 세계화, 정보화와 같은 바람이 불면서 교육방식에 있어서 공교육의 새바람이 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은 입시위주의 교육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인지적 발달은 이루고 있으나 공부방은 사회적·정서적 발달을 중심으로 대안교육의 형태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교의 보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초등학교

교 아동의 경우 올바른 인간관계의 형성을 위해 가정교육이 중요한 시기이지만, 농촌지역 아동의 경우 농업에 종사하는 부모의 가정환경으로 가정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첫째는 학습교육 활동이다. 농촌지역 아동들이 겪고 있는 학습부진과 학습장애에 대해 부족한 학과 공부를 보충하고 각 아동들의 수준에 적합한 개별학습, 숙제지도, 탐구학습 등을 진행한다. 아동에 대해 학업을 안내하고 지도하는 것은 방과 후 보육서비스의 중요한 목적이다(이옥, 1996). 둘째는 문화체험 활동이다. 아동을 대상으로 야외체험학습, 공동체 놀이 등 다양한 경험을 한다. 셋째는 심리상담 활동이다. 아동들이 겪고 있는 따돌림, 소외, 폭력 등에 개입 및 상담을 한다. 넷째는 지역복지 활동이다. 아동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자모회를 운영하여 어머니 학교, 수지침학교, 주민잔치, 어린이 날 행사 등의 사업을 전개한다. 또한 가정과 지역에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여 물적 자원뿐만 아니라 통합적인 복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가정상담, 지역의 문화행사와 무료진료사업, 지역청소활동 등의 지역사회센터로서 활동도 하고 있다. 또한 정기적인 바자회를 통한 재정사업에 관여하기도 한다(류미희, 1993; 구경모, 2001).

이와 같이 인지적 발달만을 위한 교육이 아닌 사회·정서적 발달과 공동체적 의식함양을 위한 교육이 함께 진행되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함으로써 가정과 학교의 보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아동의 흥미를 포착하고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들을 고려하여 지역사회의 가용 자원을 활용하고 아동의 자발성과 자원교사의 특별한 재능이나 흥미에 기초하여 비형식적인 사회 학습의 기회를 아이들에게 제공한다. 그리고 프로그램 계획이나 실행시 통합된 접근을 하고, 아동 주도활동과 교사 주도활동의 균형을 맞춘다(김주현, 1995; 어효은, 2001).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은 공부방은 없지만 방과후 아동지도가 운영되는데 프랑스의 방과 후 아동지도의 목표는 첫째, 자율적인 아동이 될 수 있도록 돕는다. 둘째, 집단생활과 사회화를 돕는다. 셋째, 상상력과 아동의 표현능력 발달을 돕는다(정윤정, 1997). 미국의 경우 방과 후 프로그램의 특성은 첫째, 아동의 자발성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한다. 둘째, 아동의 자신감을 고취시킨다. 셋째, 아동이 또래집단과의 관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넷째, 성인이 적절하게 개입한다. 다섯째, 학교의 기능을 보완한다. 여섯째, 적절한 레크리에이션을 강조한다. 일곱째, 아동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참여시키는 활동을 강조한다(정정순, 1999; 차경선, 2001:50 재인용).

4) 공부방에 대한 선행연구

아동복지서비스의 일종인 공부방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도시빈민지역의 공부방을 대상으로 공부방의 역할, 운영실태, 문제점 파악, 그리고 욕구조사를 바탕으로 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공부방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이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공부방의 역할과 준립근거를 마련하면서 공부방의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나 활성화 방안

초점을 둔 연구(오세향, 1995; 민은희, 1998) 또는 공부방 시설의 만족도 조사를 통한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수립을 강조한 연구(류미희, 1993; 이향란, 1996; 김재환, 1996; 문영근, 1998)가 있다.

류미희(1993)는 공부방을 지역주민들과 탁아소를 졸업한 아동들의 부모의 요구를 수렴하여 자생적으로 생겨난 지역사회 복지사업으로 보았다. 공부방이 지역에서 방치되는 아동을 보호하고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며, 학습지도와 정서발달을 통해 건전한 아동으로 육성하는데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역 센터의 역할도 담당한다고 평가했다(김정희, 2001:26 재인용).

도시지역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해 실시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이 아동의 보호와 공동체 생활의 기회제공이라는 점에서 도움이 되고, 교사와 부모들은 방과 후 프로그램이 아동의 안전, 또래와의 교제기회 확대, 학습지도 등에 도움이 되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아동에 비해 문제 행동이 낮게 된다고 보고하였다(이옥, 1993; 김현, 1994; 김주현, 1995).

저소득층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회공부방의 운영실태의 어려움을 연구하면서 공부방이 아동보호의 기능, 사교육비 경감, 방과 후 유해 환경 노출에 대한 보호, 아동의 전인적 성장 도모 등으로 방과 후 아동지도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보여주었다(오세향, 1995; 김재환, 1996; 송영숙, 1998; 윤정희, 1998; 장양숙, 2000). 김선미(1996)는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후 프로그램을 복지적 관점, 교육적 관점, 지역사회 운동적 관점으로 살펴보았는데, 복지적 관점은 방과 후 프로그램이 아동복지 차원에서 아동의 기본권과 복지권을 보장하여 그들에게 안전한 보호와 예방, 보상을 제공해 주며 약화된 가족의 아동보육기능을 지원해주는 역할과 함께 프로그램의 모형 정립을 하게 되었다. 방과 후 아동프로그램을 사회복지적 관점으로 살펴보면 저소득 영세집단의 아동을 위하여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보상적 기능은 강화되어야 하며, 공적 보육사업이 활성화되어 건전한 발육을 도모해야 함을 보여준 김정하(1996)의 연구에 이어 이향란(1996)과 이경림(1997)은 방과 후 아동의 생활실태와 운영현황, 욕구에 관한 연구를 통해 공부방의 실태조사를 하면서 접근하였다. 이경림(1997)은 부스러기선교회 소속 전국의 도시빈곤, 공단, 농촌 등의 31개 공부방 아동 394명을 대상으로 공부방을 다님으로써 도움이 된 점에 대한 물음에 성적이 도움이 된다(41.9%), 선생님과 대화하는 것(22.3%), 놀이 및 친교(16.1%),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사설학원과 같은 사교육을 받을 수 없는 아동의 경우 공부방을 통해서 이를 대신하고 있으며, 공부방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즉,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못한 아동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며, 방과 후 가정에 방치되어 있거나 거리를 방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함께할 수 있는 공부방 교사와 같은 누군가가 필요하며, 공부방에서 간식 등 신체적 영양의 보충을 해주길 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정희(1998)는 공부방에 참여하는 아동 1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공부방을 다님으로써 도움이 된 점에 대한 물음에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51.1%), 또래 친구들을 많이 사귄 수 있어서(22.1%), 특별활동 시간에 여러 가지를 해볼 수 있어서 좋다(13.7%) 순

으로 응답이 나왔다. 또한 빈곤지역 아동의 반수이상이 학교성적, 소외, 가정의 빈곤과 불화로 인해 가출·자살을 생각했었다는 점에서 더욱 방과후에 아동들과 함께할 수 있는 공부방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된다.

이와 함께 공부방의 저소득층의 지역 교육운동의 정당성을 연구한 이동옥(1997)과 학령기 아동의 방과 후 여가선용 지도는 아동을 학부모들의 과중한 과외비 부담을 덜어주고, 가정과 학교, 가정과 기관의 연계교육으로 사회성을 길러주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 개발에 도움을 준다(황정숙, 1997)고 입증함으로써 지역내 공부방의 역할 기상을 보여주었고, 공부방의 역할과 존립근거를 마련하고 학령기 아동의 보육서비스 기관으로 활동하면서 공부방의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가 계속되었다(민은희, 1998; 이경일, 1998).

또한 과거의 연구보다 더 심층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지역아동들이 공부방을 경험함으로써 얻게 되는 다양한 교육운동 혹은 사회복지 운동적 성격 등 교육 복지적 효과 측면을 살펴봄으로써 공부방의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이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오유진·권현수·김영일·김은영(1998)은 “빈곤가족 아동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의 참여는 아동들의 자아존중감 향상과 학교생활 적응도에 높은 향상을 나타낸 것으로 보여주었다(한순옥, 2000:73 재인용). 박사라(2000)는 “방과 후 프로그램이 한부모가정 아동에 미치는 영향연구”에서 또래집단과 교사와의 관계에서 다양한 자극을 통한 상호작용은 아동의 상황 대처능력을 높여주고, 인간관계 훈련의 기회로 되어 아동의 정서적, 사회적 발달을 돕는다. 또한 정서적, 심리적 상처를 받은 아동에게 문제행동을 치유할 수 있도록 돕고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 가정의 기능을 강화될 수 있도록 보였다. 방과 후 집단 활동 프로그램의 참여가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를 통해 사회적 능력의 하위 요인중 주도성에서 효과를 검증하였으며, 개방적이고 상호작용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 한순옥(2000)의 연구와 어효은(2001)의 “도시빈민지역 아동의 공부방 경험과 사회적 능력의 관계 연구”를 통해 처음으로 공부방의 어떤 변인들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도시지역 일반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동보다 빈민지역에 있는 아동의 사회적 능력이 낮게 나왔다. 공부방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보면 사회적 지도력에는 교사와 아동간의 친밀한 정도와 프로그램 지도방식이, 협동성에는 아동이 교사를 존경하는 정도와 교사에 대한 만족도, 사교성에는 아동이 교사를 존경하는 정도와 교사와 아동간의 친밀 정도가, 준법성에는 아동이 교사를 존경하는 정도와 교사의 특성, 프로그램 자료, 그리고 교사에 대한 만족도가 영향을 미쳤다. 프로그램 지도방식은 사회적 능력 전체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였다. 따라서 공부방의 운영에 있어서 위와 같은 요인을 개선하고 보완한다면 가정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여 아동의 사회적 능력 증진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 김정희(2001)의 “도시저소득층지역 공부방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공부방 인식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통해 공부방 교육프로그램의 인식과 자아존중감

간의 정적인 상관성을 보여주었다. 공부방은 아동의 학습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과, 공부방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공부방 인식측면에서 공부방에 대한 91.9%의 높은 만족도를 가지며, 참여기간, 참여동기 그리고 공부방 만족도에 따라 공부방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자아존중감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자신있게 살아 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차경선(2001)은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방과후 아동지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지역사회와 탁아소와 가정, 가정과 지역사회를 연계망을 구축하여 교사, 부모 및 사회복지사가 관계를 긴밀하게 하여 아동에게 적절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학령기 아동의 경우 다양한 환경에 맞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과후 아동지도는 저소득층 아동의 학습지원을 위한 시작으로 인해 공부방으로 불리고 있으며, 방과후 아동에 대한 프로그램이 중요함을 보여주었다.

학령기 아동이 방과후 아동지도 참여로 인해 사회적 능력을 살펴보면 학령기 아동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운영기관의 특성, 참여아동의 특성을 가지고 조사한 결과 참여아동의 인지 능력이 사회적 능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프로그램 진행시 아동 개별적 파악과 적절한 지도가 중요함을 보여주었다(김소정, 2002).

빈곤지역에 있는 민간 공부방을 중심으로 활성화 방안을 살펴본 유영희(2002)는 공부방의 교육수준에 비해 전문성이 낮다는 측면에서 재정적 지원을 통한 교사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대부분의 공부방에 참여하는 아동과 부모들은 공부방 참여가 자녀교육 및 보호에 도움이 되기에 보육 서비스의 연장선상에서 운영시간을 연장해야하고, 특기교육의 높은 욕구에 비해 공부방의 시설이 열악하며 운영상의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방과후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외국논문을 살펴보면, 방과후 프로그램이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학업능력의 향상, 사회성과 자아개념의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Halpern(1992)이 밝혔으며, 아동발달을 도와주며 지역사회와 협력할 기회를 증진시킨다고 보고하였다. 아동들의 읽기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이지수, 1997 재인용 ; 박사라, 2000:13 재인용)

위와 같이 공부방에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도시빈민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농어촌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한 공부방의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뿐만 아니라 공부방 참여로 인한 학령기 아동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연구가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 2 절 조사된 공부방 실태

1. 조사대상지역

본 연구의 조사대상지인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리의 지역적 특성을 간략히 살펴

보고자 한다. 이 지역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벼농사, 고추·인삼·수박·토마토 재배와 양계장이 있으며, 이평리 중심에는 유기농을 하시는 마을분들이 모여 슬피농장이 있어 농촌학생연대활동으로 대학생들이 찾아오면서 방학때 운영을 하게 된 배움터가 시작하는데 출발점을 만들 수 있었다.

이 지역은 충청북도와 경상북도 경계선 지역에 근접하며, 송면이 남쪽에 위치하고 동은 삼송리, 남쪽은 경북 상주시, 서쪽은 송면리와 화양리가, 북은 송면과 삼송리에 접하고 있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괴산 송면초등학교(남학생 27명, 여학생 26명)와 유치원, 입석초등학교, 송면중학교(남학생 25명, 여학생 13명)로 유치원 1곳, 초등학교 2곳, 중학교 1곳이 있으며 고등학교는 없다.

그리고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교육·문화시설이 없으며, 복지시설로 경로당과 복지회관이 있는데 이 시설은 지역행사에 주로 사용된다. 방과후에는 친구들과 넷가, 폭포, 동굴이 있는 곳으로 가거나 산에 올라가고, 친구들과의 가정집이 위치한 곳이 멀리 떨어져있어 방과후 친구들과 노는 것보다 집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 조사된 배움터의 일반현황

1) 시설형태 및 운영

조사된 배움터의 위치는 충북지역 아동들과 경북지역 아동들의 가정들의 중심에 위치하며, 걸어서 오가는 아동과 차량을 통해 오가는 아동이 있다. 배움터의 공간은 공부방을 위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곳이 아니고, 지역에서 인간과 자연의 생명을 소중히 하면서 유기농을 하시는 지역주민이 모여 운영하는 슬피농장 회원분들이 지역아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농장을 빌려주셔서 학습 및 실내 프로그램의 경우 건물 2개를 사용하고 야외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농장전체를 사용하고 있다.

S 배움터를 처음 시작하려고 했던 O씨의 증언을 중심으로 살펴본 배움터의 형성과정은 다음과 같다.

S 배움터의 사례 :

조사대상이 된 배움터의 출발점은 농촌지역에서 지역주민과 생활하면서 여름농활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를 주었다. 즉 대학생들이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의례적으로 진행되는 농활이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까라는 의문부터 시작해서 대학생들의 인력이 적절한 시기에 농활을 하는지 생각해보면 아닌 경우가 많다. 농활을 통해 농민과 대학생들이 느끼는 부분은 정반대일 수 있다. 하지만 농민들은 대학생들이 농활을 통해 농촌지역에 대해 도시로 떠나갈 때 조금이나마 이해를 가져갈 수 있다면 좋다는 부분에 큰 의미를 두게 되었다. 그렇다면 대학생들은 겨울방학때는 농활이 없다. 아마도 겨울에는 농업을 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기 때문이다. 여름에는 대학생들이 농민들로부터 자연이 주는 생명의 선물에 대해 배울 수 있고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면 겨울에는 대학생들이 농민들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보았다. 그것은 바로 지역주민이 가장 관심있어 하는 것이 자신의 자녀에 대한 교육 문제였다. 이것은 유기농을 하시는 농민뿐만 아니라 농촌에서 살고 계시는 대부분의 부모의 마음일 것이다. 즉 자녀의 교육에 대한 부분에 대학생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곳에서 나와 함께 농활을 했던 대학생들에게 나의 생각을 전하게 되었고,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동료가 생겨 배움터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O씨가 농촌지역에 관심을 가지게 된것은, 당시 농활을 통해 농촌지역을 어렸을때 바라본 농촌과는 다른 민중의 삶으로 고민하면서 매력을 갖게 되었고, 소모임을 통해 활동하기 시작했다.

이 배움터가 시작된 시기는 2001년부터 진행되어 2004년 올해까지 매년 여름·겨울방학때면 2주에서 1달사이의 배움터 기간을 결정하여 농촌지역 아동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대학생들을 모집하여 진행되는데, 2000년 여름방학때 농촌학생연대활동에 참여하면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지역주민들과 지역 아이들의 욕구를 알게 되어 시작하게

되었다. 또한 이 배움터의 운영형태는 특별활동 중심형으로 학습지도보다는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아동이 경험해보고 싶어하는 프로그램을 조사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변화를 주어 다양한 문화활동을 실시하여 아동에게는 많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매 회별 배움터의 주제를 선정하여 주제를 정하게 된다. 특히 캠프를 통해 잠시 가정에서 벗어나 대학생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게임하는 것을 좋아한다. 배움터 운영시간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공부방은 방학중에 운영되며,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전체적으로 오전 7시부터 8시까지는 초등학교, 중학교 모두 학교운동장에 모여 축구경기를 진행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중학교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는 초등학교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2) 인력현황

배움터에 참여하는 교사의 연령은 20세부터 30세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대부분 기혼이며, 교사의 수는 매회별 보통 15명 정도이다. 하지만 배움터가 진행되면서 아동의 부모님이 참여하게 되면서 교사의 연령층은 다양하게 되었고, 가정에서 부모로 만나는 것과 배움터에서 교사로 만나는 기회를 얻게 되면서 지역주민과 함께 만들어가게 되었으며, 성별은 일반적으로 여성이 많다. 대학생들의 경우 아동 및 청소년 교육학에 관련된 전공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교육학에 관련된 전공이 아닌 사회복지학, 심리학, 사회학, 국사학, 철학, 의학, 한의학, 물리학 등 다양한 전공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 배움터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연순(1988)은 교육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의 지도가 과연 교육적인가 의문시 하였지만 실천현장에서 교육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빈곤지역이나 농촌지역에서 찾아보기 힘들고, 배움터에 참가하면서 아동들에게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는 지도방식을 찾아서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학문을 배우고 있는 학생들이 아동들에게 맞는 학습 및 놀이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배움터 교사가 지속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서 교육의 전문성에는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배움터를 진행하기전 교사교육을 통해 효과적인 교육방법을 배워 전문성을 갖추는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배움터에서 프로그램의 지도방식은 자원교사들 각각의 지도방식이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살펴보면 아이들의 단점보단 강점을 벌보다는 칭찬을 통제보다는 자율을 강요보다는 설명을 통한 설득방식을 취한다.

배움터 교사를 시작하게 된 동기를 보면 평소에 아이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 참가하게 된 교사도 있고, 농촌지역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하게 된 교사도 있다. 하지만 배움터의 교사 대부분이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배움터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특히 요즘처럼 영어학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배움터 자원교사를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참여를 어떻게 유도

할지 고민하게 되었다.

3) 재정상황

현재 방학때 운영되는 배움터는 교사들이 상주하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후원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 없으나 경제적인 부분보다는 농촌지역 아동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보고자 운영되었기 때문에 크게 신경은 쓰지 않았다. 따라서 배움터의 재정은 배움터에 참여하는 대학생 자원교사의 참가회비와 참여하는 아동의 참가회비와 배움터 후원자들의 후원회비로 진행되다가 솔피 농장회원들의 지역아동에 대한 관심으로 교육 후원회비로 구성되었다. 또한 배움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 기증과 아동에 대한 간식거리는 학부모의 농산물을 기증 받아서 진행되었다. 이렇게 모인 재정은 프로그램 진행비, 아동의 간식비, 배움터 자료집 제작 등으로 사용된다.

4) 이용상황 및 프로그램 현황

배움터의 아동모집대상은 4세부터 고등학생까지 모집하고 있으나 실제 참여아동은 4세부터 중학생이 주 대상이 되고 있으며, 공부방에 참여하는 아동의 부모의 경우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시며, 부모님께서 프로그램에 진행하면서 참여하기도 하고 아이들의 간식거리를 만들어주기도 한다. 참가하는 아동의 총인원수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만 5세부터 고등학생까지 참여하고 있어서 약 45명 정도로 배움터의 공간이 부족할 정도로 많다.

배움터의 프로그램은 방학전 지역초등학교, 중학교를 방문하여 아이들의 욕구조사를 바탕으로 배움터에 참가하게 되는 대학생 자원교사들이 모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존 공부방이나 복지관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농촌지역 아동에게 맞는 프로그램으로 바꾸어 공부방 진행기간 일정에 맞춰 진행하게 된다. 또한 배움터에 아이들을 보내는 부모님의 경우 농촌지역에 사설학원과 같은 교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도시지역 아이들보다 학습능력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으로 배움터에서 학습지도를 보다 더 많이 진행했으면 하는 욕구를 보여 학습지도와 특별활동을 적절히 조화시켜 진행하고 있다. 학습지도는 학교수업 내용을 보충하고 특별활동은 아동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그 예로 2004년 1월 5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었던 제7회 “다함께 놀자”때 배움터의 프로그램 일정을 보면 < 표 1 >과 < 표 2 >와 같다.

< 표 1 > 배움터 일정

시간	5(월)	시간	6(화)	7(수)	8(목)	9(금)	시간	0(토)
2시 - 5시	접수 및 레크 레이션	2시-3시	방학숙제	방학숙제	방학숙제	방학숙제	1시 - 4시	운동회
		3시-3시반	간식	간식	간식	간식		
		3시반 -5시	연 만들기	음식 만들기	영화 보기	퀴즈놀이		

< 표 2 > 캠프 및 마을잔치 일정

시간	12(월)	시간	13(화)	시간	17(토)
오후 2시	집합	오전 7시	기상	12시-2시	다 같이 점심 식사
2시반-4시	레크레이션	7시-9시	아침식사	2시-5시	장기자랑 (교사들, 학부모님들, 아이들)
4시-5시반	영화감상	9시-10시	청소 및 집정리	5시-	자유롭게 놀시다.
5시반-7시	저녁식사	10시-12시	스티커 붙이기 돌림종이 우리들의 이야기		
7시-9시	극기훈련, 공포체험				
9시-12시	별자리 관찰 고구마 구워먹기 캠프파이어	12시-	각자 집으로		

또한 프로그램은 농촌지역 아동에 대한 포용적인 자세로 인성발달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것에 관심을 두고 진행되며, 공부방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학습지도, 특기활동, 체육대회, 급식 및 간식, 어린이 발표회, 야유회, 상담, 공동체 훈련을 진행한다. 7회 솔맹이 배움터가 진행되면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그동안 프로그램에 학부모님들도 참여하고 진행도 하였지만,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배우는 교육시간과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진행하여 높은 호응을 받았다.

5) 운영상의 문제점

이 배움터는 지역에서 상주형 공부방이 아니고 방학때 2주간 진행되기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지 않지만 지역 상주형 공부방은 지속적인 경제적 후원과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조사된 배움터의 가장 어려운 점은 바로 자원교사 수급문제이며, 이는 결국 지속적인 참여가 불가능하여 전문적인 교육이 진행되지 못하는 문제도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아이들의 교육에 관심있는 자원교사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6) 배움터의 진행으로 인한 강점

배움터를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강점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농촌지역 아동 측면에

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건전하고 다양한 놀이·교육문화의 제공으로 도시지역 아동에게 느끼는 문화적·교육적 소외감을 줄여주고 대학생 자원교사들과의 만남을 통한 올바른 인간관계 형성을 만들 수 있다. 둘째, 지역주민 측면에서는 농사일로 바쁜 농번기에 농민들이 자녀를 맡기는데 안심할 수 있는 공간마련과 자녀에 대한 교육적 관심이 높은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 셋째 배움터에 자원교사로 참여하는 대학생 측면에서는 농촌지역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아이들과 함께하는 자원봉사활동의 기회를 통해 자기 만족감을 채워갈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을 찾을 수 있다. 넷째,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연결고리를 형성하게 된다. 이는 배움터 교사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농촌지역에서의 활동영향으로 주변사람들이 농촌지역과 아동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도농교류를 위해 청년들이 함께하게 되면서 농촌을 알아갈 수 있는 계기도 되었다.

Ⅲ. 연구방법

제 1 절 조사대상자 및 조사도구

본 연구는 농촌지역 아동의 공부방 경험에 대해 아동과 학부모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파악하고, 공부방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리에서 방학 중에 운영중인 솔맹이 배움터에 참가한 아동 30명과 학부모 10명을 조사대상자로 하여 설문조사하였다. 이때 아동의 경우 초등학교 3, 4, 5, 6학년과 중학교 1, 2, 3학년을 대상으로 한다. 그 이유는 대부분 저학년은 개인주의적 특성이 있어서 사회적 관계에 미숙하고 생활 전반에 걸쳐서 성인에 의존하는 경향이 남아있어서 교우관계는 아직 약하고 자기가 소속 집단에 대한 의식도 발달되어 있지않다. 그러나 3학년때부터는 도당²⁾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통찰이 발달하고 타인과의 교섭이나 협동에 익숙해지게 되며, 사회생활에 대한 적응능력이 생기기 때문이다(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 개발, 1996; 어효은, 2001).

조사도구는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작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구성은 < 표 3 >과 같다.

2) 9-12세까지를 도당시기라 하며, 도당시대(gang age, 또래집단)의 절정인 5-6학년에는 친구들과의 정신적 교류가 활발하며 공동의식, 즉 소속의식이 발달하여 지도자를 중심으로 교우관계가 형성되고 아동의 집단적 활동은 모험을 즐기고, 반사회적 행동을 할 위험성이 있다는 뜻에서 gang이란 말을 사용(정원식·강주태, 1981, pp. 126-127).

< 표 3 > 설문지 구성

구 분		설문 항목	문항 번호	문항수
공 부 방 아 동 용	일반적사항 *	아동성별(남 / 여)	1	1문항
		학년(초등학교 ()학년 / 중학교 ()학년)	2	1문항
	* 배움터참여동기	배움터 알게된 경로	3	1문항
		참여주된 동기	4	1문항
	* 배움터만족도 (프로그램,기간)	배움터의 전반적인 만족도/의견조사	5-5-1	2문항
		만족/불만족한 이유서술	6	1문항
		배움터의 시간에 대한 만족도	7	1문항
		배움터의 형식에 대한 의견	8	1문항
		좋았던 프로그램	9	1문항
		차후 배움터에 바라는점	10	1문항
공 부 방 학 부 모 용	배움터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배움터 알게된 경로	1	1문항
		참여주된 동기	2	1문항
		배움터의 전반적인 만족도/의견조사	3-3-1	2문항
		배움터의 시간에 대한 만족도	4	1문항
		배움터의 형식에 대한 의견	5	1문항
		차후 배움터에 바라는점	6	1문항

제 2 절 자료수집 방법 및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방법은 연구대상 기관에 본 연구의 취지를 설명한 후 공부방에 참여한 아동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방학중 공부방이 끝나는 2004. 1월 17일에 설문조사를 하면서 회수하였으며, 분석방법은 가장 일반화된 각 문항에 대한 빈도(Frequency), 백분율(Percentage)을 산출하여 공부방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와 보다 개선해야 할 부분을 살펴보았다.

IV. 조사결과 및 분석

제 1 절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인 아동 30명의 일반적인 사항으로 성별, 학년별로 살펴보면 < 표 4 >와 같다.

< 표 4 > 응답자의 일반적인 사항

문항	구분	빈도(명)	빈도(%)
아동의 성별	남	16	53.3
	여	14	46.7
	계	30	100
아동의 학년	초등학교 3학년	7	23.3
	초등학교 4학년	10	33.3
	초등학교 5학년	5	16.7
	초등학교 6학년	1	13.3
	중학교 1학년	3	10
	중학교 2학년	2	6.7
	중학교 3학년	2	6.7
	계	30	100
학부모 연령대	30대	10	100

조사대상자는 아동 총 30명중 초등학생은 23명(76.7%)이고 중학생은 7명(23.3%)이며, 아동의 성별은 남학생이 16명(53.3%), 여학생이 14명(46.7%)로 성비율이 비슷하고 아동의 학년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10명으로 33.3%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중학생의 비율을 합친 23.4%보다는 초등학교 학생이 공부방의 76.6%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점은 초등학생의 경우 호기심과 즐거운 시간을 갖기 위해 처음가는 곳도 가지만, 중학생의 경우는 공부방에 참여하는 친구가 누군지에 따라 참여하는 비율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캠프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일시적으로 참여인원이 보통의 2배가 된다. 학부모의 경우 초등학생을 자녀로 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부모 10명 모두 30대임을 알 수 있다.

2. 공부방에 참여한 아동, 학부모 설문조사결과

조사대상자의 배움터를 알게 된 경로에 대한 설문 결과 < 표 5-1 > 을 보면 아동의 경우 ‘솔맹이 배움터 선생님들의 홍보로’ 라고 대답한 학생이 13명으로 43.3%의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부모님이나 가까운 분의 소개로’라고 대답한 학생이 10명으로 33.3%이고, ‘학교 선생님의 소개로’라고 대답한 학생은 4명으로 13.3%를 나타내고 나머지는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학부모의 경우도 아동과 비슷하게 ‘솔맹이 배움터 선생님들의 홍보로’ 라고 대답한 학부모가 5명으로 50%의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친구의 소개로’라고 대답한 학부모가 3명으로 30%를 보였다. 기타 의견으로는 예전부터 공부방에 다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오게 되었다고 대답하였다.

그 다음 질문으로 배움터에 참여하게 된 주된 이유에 대한 것으로 아동의 경우 ‘가면 재미있고 즐겁기 때문에’라고 대답한 학생이 18명으로 60%의 높은 수치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 ‘친구들이 가기 때문에’라고 7명인 23.3%의 수치를 보였다. 학부모의 경우 자녀를 공부

방에 보내게 된 주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가면 재미있고 즐겁기 때문에’라고 5명인 50%의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술맹이 배움터 선생님이 친절해서’라고 3명인 30%를 보였다. 이는 자녀의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도 있지만, 농촌지역에서 아이들에게 주는 문화 생활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준비한 다양한 놀이문화를 접하면 아이들이 좋아한다고 생각했다는 점과 3년이상 진행된 술맹이 배움터 교사들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 표 5-1 > 응답자의 설문조사 결과

문항	구분	빈도(%)	
		아동	학부모
배움터를 알게 된 경로	친구의 소개로	3명(10)	3명(30)
	부모님이나 가까운 분의 소개로	10명(33.3)	2명(20)
	학교선생님의 소개로	4명(13.3)	0명(0)
	술맹이 배움터 선생님들의 홍보로	13명(43.3)	5명(50)
	지나가다가 우연히 발견해서	0명(0)	0명(0)
	기타	1명(3.3)	0명(0)
배움터 참여 주된 이유(아동용) / 자녀를 참여하게 한 이유(학부모용)	친구들이 가기 때문에	7명(23.3)	1명(10)
	배움터하는 장소가 집과 가깝기 때문에	0명(0)	0명(0)
	술맹이 배움터 선생님이 친절해서	2명(6.7)	3명(30)
	간식을 먹을 수 있어서	2명(6.7)	0명(0)
	고민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0명(0)	1명(10)
	가면 재미있고 즐겁기 때문에	18명(60)	5명(50)
	학교선생님이 참여하라고 해서	0명(0)	0명(0)
기타	1명(3.3)	0명(0)	

그 다음은 배움터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 표 5-2 > 와 같이 대답하였다. 아동의 경우 ‘매우 만족한다’라고 대답한 학생이 25명으로 83.3%의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대부분 ‘만족한다’라고 27명으로 90%가 응답해주었다. 이는 술맹이 배움터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 경우 학교수업을 마치면 버스를 타고 나가야 있는 예체능 학원외에는 놀이문화를 주는 곳이 없기 때문에 놀이문화에 관심이 많은 아동의 경우 호응이 높을 수 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학부모의 경우도 ‘매우 만족한다’가 8명으로 80%를 보였다는 점에서도 자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공부방인 만큼 만족해 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만족한다면 어떤 점이 만족스러운지 구체적으로 대답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 선생님들이 친절하고, 재미있으며 친구들과 방학때도 함께 놀 수 있고, 선생님들과 다양한 놀이와 게임을 할 수 있어서 좋고, 맛있는 간식과 급식, 혼자하기 힘들어했던 방학과제물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만족한다고 서술하였다. 이에 반해 ‘불만족하다’라고 대답한 이유는 집에서 배움터까지 오고가는 데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다. 이 점에 마을분과 아이들이 배움터에 오갈 수 있는 통학차량을 지원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도움요청에 사고에 대한 걱정으로 통학차량은 힘들고, 아이들 각자 학부모가 차량을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현재 배움터에서 아이들을 위해 통학차량은 운행하고 있지 않다.

배움터의 기간에 대한 의견에는 아동의 경우 ‘기간이 더 길었으면 좋겠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20명으로 66.7%를 보였고, ‘적당하다’가 10명으로 33.3%의 수치를 보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학부모의 경우도 각각 70%, 30%의 수치를 보였다는 점에서 농촌지역에 있어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배움터에 대한 욕구가 매우 강함을 알 수 있다.

배움터 형식에 대한 의견에는 < 표 5-2 >의 경우처럼 ‘캠프를 더 오래했으면 좋겠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18명으로 60%의 높은 수치를 보였고, ‘만족한다’가 9명으로 30%를 보였는데, 농촌지역 아동의 경우 집을 떠나 친구들과 함께 캠프에 참여하는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배움터에서 진행하는 캠프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점에 캠프를 너무 오래 진행하는 경우 학부모의 걱정과 진행상의 어려움으로 고민중이다. 이와 반대로 학부모의 경우 ‘공부방을 더 오래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에 6명인 60%를 보였는데 이는 과외 학습이 불가능한 현실에 배움터에서 자녀에 대한 과외학습을 더 길게 진행하기를 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배움터에서는 방학과제물을 중심으로 다양한 놀이문화를 개발하게 되고, 교과서 중심이 아닌 학년별 학습내용에 맞는 교수법을 개발하여 진행하고 있다.

< 표 5-2 > 응답자의 설문조사 결과

문항	구분	빈도(%)	
		아동	학부모
배움터에 대한 만족도	매우 만족한다	25명(83.3)	8명(80)
	만족한다	2명(6.7)	2명(20)
	보통이다	2명(6.7)	0명(0)
	불만족한다	1명(3.3)	0명(0)
	매우 불만족한다	0명(0)	0명(0)
배움터 기간에 대한 의견	적당하다	10명(33.3)	3명(30)
	기간이 더 길었으면 좋겠다	20명(66.7)	7명(70)
	기간이 더 짧았으면 좋겠다	0명(0)	0명(0)
배움터 형식에 대한 의견	만족한다	9명(30)	3명(30)
	공부방을 더 오래했으면 좋겠다	2명(6.7)	6명(60)
	캠프를 더 오래했으면 좋겠다	18명(60)	1명(10)
	기타	1명(3.3)	0명(0)

배움터에서 진행되었던 프로그램 중에서 좋았던 프로그램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공포체험, 쥐불놀이, 만들기(연, 바람개비, 음식 등), 캠프, 운동회, 영화보기, 야외소풍을 선정하였다. 다음 방학때 배움터에서 진행했으면 하는 프로그램이나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적어 달라는 질문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아동의 경우 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는 영화를 많이 보고 싶다. 많이 놀았으면 좋겠다. 연만들기, 공포체험, 그림 그리기, 동굴 체험을 하고 싶다. 배움터에 바라는 점에 대해서는 캠프가 길었으면 좋겠다. 공부방으로 데리러 오고 데려다 주면 좋겠다. 자신을 때리는 아이들을 혼내주면 좋겠다. 기타 의견으로 공부방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공부방에 들어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등의 의견을 보여주었다. 이에 반해 학부모의 경우 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는 초등학

생일 경우에는 손으로 직접 만드는 놀이를 많이 하면 좋겠다는 의견, 배움터에 참여했던 졸업한 언니, 형들이 도우미로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배움터에 바라는 점에 대해서는 준비과정부터 진행과정까지의 사항들을 기록으로 꼼꼼하게 적어 두었으면 더 좋았으면 하는 의견과 선생님들의 사랑과 관심에 학부모로써 감사드린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3. 본 연구자의 농촌지역 공부방 활성화를 위한 방안모색

조사대상이 된 배움터의 출발점부터 2004년 올해 초반부터 배움터에 참가하고, 차후 공부방 조사를 위해 충청남도, 경상남도 등지의 행정구역상 ‘리’ 단위 지역의 농촌지역에서 운영중인 공부방을 돌면서 상주형 공부방 교사활동을 하시는 선생님을 만나보면서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농촌지역에서 공부방을 운영할 때 보다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생각해보았다.

첫째, 지역아동센터(공부방)에 대한 법적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역별 차이에 대한 이해를 갖지 않고 법제정이 되면 일률적인 적용되어 실천현장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실무자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 예를 들어 지역아동센터의 기준이 25명이라고 했을 때 기준 평수를 맞추기 위해서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경우 기준마련에 대한 어려움이 다를 것이다. 즉 시설 설치기준의 융통성 부여, 교사 인건비의 명확화, 안전관련 보험제도의 마련등의 제도가 필요하며, 실무자의 전문성을 위해 자격을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농촌지역의 경우 자격을 갖추기 위해 정해진 기간에 교육을 받는데 인력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으며, 경제적 지원시 한정된 부분에만 사용해야 한다면 꼭 필요한 부분에 투입할 수 없어 실무자의 실제적인 어려움에 대해 귀담아 듣고 어느정도의 자율성을 부여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둘째, 자원교사의 전문성 및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 도시지역의 경우 자원교사 확보시 주변 복지관의 사회복지사 및 대학교의 자원교사를 통해 인력을 확보하여 충원하고 있으나 농촌지역의 경우 도시지역과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자원교사를 충원했을 때 교통이 불편하여 지속적으로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본 조사대상인 배움터의 경우 상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다른 공부방에 비해서 자원교사인 대학생들과 가까이에서 학교생활을 하는 선후배, 동기들이 있다는 점에서 강점이 될 것이다. 하지만 자원교사를 대학생들 위주로 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배움터의 지역과 대학생 거주간의 거리가 멀다는 점과 방학때면 대학생들은 영어학원, 국내외 여행, 아르바이트 등으로 자원봉사활동 참여가 점점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자원교사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서 공부방 자원교사확보를 위해 군복무 대신 공익근무를 활용하거나 면접을 통한 공공근로를 활용한다면 농촌지역에서의 부족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지역주민중 아동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고 종교적인 색채를 벗어나 미래아동을 위한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공부방 교사들의 전문성을 위해서는 특히 아동발달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재 교사로 활동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강화하고 세미나, 워크숍 등의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과 자원연계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도시지역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경우 아동이라는 공통된 부분에 일률적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면 역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진행시 공부방이 위치한 지역특색에 각색해야 하고, 공부방 교사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역자원의 개발과 현황조사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무엇인지 컨설팅할 수 있는 연계전문 인력이 확보되기 위해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기관과 민간단체에서는 관심이 요구된다.

V. 결론 및 제언

제 1 절 조사결과 요약

본 연구는 2001년 1월 시작되어 현재까지 충북 괴산군 청천면 이평리에 위치한 솔피농장에서 매 방학때마다 대학생들이 마을주민과 함께 지역아이들을 위한 배움터를 진행하면서 경험한 내용과 이번 7회 배움터에 참여했던 교사, 학부모, 아동에게 배움터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묻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에 진행될 배움터를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조사하게 되었다.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으로 아동 총 30명중 초등학생은 23명(76.7%)이며, 남학생이 16명(53.3%), 여학생이 14명(46.7%)으로 남녀 성비율이 비슷하였다. 중학생보다 초등학교 학생이 공부방의 76.6%를 차지하는데 초등학생의 경우 호기심과 즐거운 시간을 갖기 위해 처음가는 곳도 가지만, 중학생의 경우는 공부방에 참여하는 친구가 누군지에 따라 참여하는 비율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캠프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일시적으로 참여인원이 보통의 2배가 된다. 학부모의 경우 초등학생을 자녀로 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부모 10명 모두 30대 임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배움터를 알게 된 경로는 아동과 학부모 모두 ‘솔맹이 배움터 선생님들의 홍보로’ 라고 학생 13명(43.3%)이고, 학부모 5명(50%)의 높은 수치를 보였다. 배움터에 참

여하게 된 주된 이유에 대한 것으로 아동과 학부모 모두 ‘가면 재미있고 즐겁기 때문에’라고 학생 18명(60%)이고, 학부모 5명(50%)의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때 학부모의 의견중 ‘술맹이 배움터 선생님이 친절해서’라고 대답한 것은 농촌지역에서 아이들에게 주는 문화 생활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준비한 다양한 놀이문화를 접하면 아이들이 좋아한다고 생각했다는 점과 3년이상 진행된 술맹이 배움터 교사들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배움터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아동과 학부모 모두 ‘매우 만족한다’라고 학생이 25명(83.3%), 학부모는 8명(80%)을 보였다. 만족한 이유에 대해 선생님들이 친절하고, 재미있으며 친구들과 방학때도 함께 놀 수 있고, 선생님들과 다양한 놀이와 게임을 할 수 있어서 좋고, 맛있는 간식과 급식, 혼자하기 힘들어했던 방학과제물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만족한다고 서술하였다. 이에 반해 ‘불만족하다’라고 대답한 이유는 집에서 배움터까지 오고가는 데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다. 이 점에 마을분과 아이들이 배움터에 오갈 수 있는 통학차량을 지원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도움요청에 사고에 대한 걱정으로 통학차량은 힘들고, 아이들 각자 학부모가 차량을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현재 배움터에서 아이들을 위해 통학차량은 운행하고 있지 않다. 기간에 대한 의견에는 아동과 학부모 모두 ‘기간이 더 길었으면 좋겠다’라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농촌지역에 배움터외의 아이들을 위한 놀이문화와 학습문화를 제공하는 곳이 거의 없고 배움터에 대한 욕구가 매우 강함을 알 수 있다. 배움터 형식에 대한 의견에는 아동의 경우 ‘캠ป์를 더 오래했으면 좋겠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18명(60%)의 높은 수치를 보였는데 이는 농촌지역 아동의 경우 집을 떠나 친구들과 함께 캠ป์에 참여하는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배움터에서 진행하는 캠ป์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반대로 학부모의 경우 ‘공부방을 더 오래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에 6명(60%)을 보였는데 이는 과외 학습이 불가능한 현실에 배움터에서 자녀에 대한 과외학습을 더 길게 진행하기를 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에 진행될 배움터에 대한 의견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아동의 경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참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의견이 많았고, 이에 반해 학부모의 경우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일 경우에는 손으로 직접 만드는 놀이를 많이 하면 좋겠다는 의견, 배움터에 참여했던 졸업한 언니, 형들이 도우미로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배움터에 바라는 점에 대해서는 준비과정부터 진행과정까지의 사항들을 꼼꼼하게 기록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농촌지역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 지역아동센터(공부방)에 대한 법적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즉 지역별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시설 설치기준의 융통성 부여, 교사 인건비의 명확화, 안전관련 보험제도의 마련등의 제도가 필요하다. 둘째, 자원교사의 전문성 및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부방 자원교사확보를 위해 군복무 대신 공익근무를 활용하거나 면접을 통한 공공

근로를 활용한다면 농촌지역에서의 부족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공부방 교사들의 전문성을 위해서는 특히 아동발달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재 교사로 활동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강화하고 세미나, 워크숍 등의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과 자원연계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위한 개발과 지역자원의 개발과 현황조사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무엇인지 컨설팅할 수 있는 연계전문 인력의 확보를 위한 사회복지관련 기관과 민간단체에서는 관심이 요구된다.

제 2 절 사회복지적인 함의

본 연구의 사회복지적 함의는 그동안 도시저소득층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부방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는 어느정도 지속되고 있으나 농촌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부방에 대한 연구가 실태조사에서 끝났지만 이 연구는 아쉽게도 방학중에만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이지만 농촌지역 아동복지에 대한 관심을 불러왔다는 생각이 든다. 아울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앞으로 지역복지측면에 대한 연구영역에서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제도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심을 가져야 함을 보여준다.

그 동안 사회복지영역에서는 다양한 영역에서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농촌지역에 대한 연구는 고령화 사회로 인한 노인분야에 대한 실태조사, 복지개선 활성화 방안, 프로그램 효과성에 머물고 있었다. 그러나 농촌지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접근할 때 노인복지뿐만 아니라 아동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이농현상의 증가를 보여주는 농촌지역 주민의 의견을 감안한다면 아동의 교육 복지적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적인 교육프로그램 등의 개입이 필요할 것이라 보여 진다.

둘째, 농촌지역에 대한 다각적 이해와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도시지역과 마찬가지로 농촌지역의 경우 똑같은 사회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지역에 대한 정확한 이해부족으로 인해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무시되거나 관심을 갖지 못했다는 점에서 도시지역보다 자원동원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자원동원과 조직화에 탁월한 사회복지적 접근과 문제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농촌지역 주민의 욕구가 증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농촌지역을 보다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제 3 절 제언 및 연구의 한계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농촌지역에서 활동하면서 도시로의 이농현상으로 빈집이 급증하게 되고, 청소년의 비행 행동 발생과 함께 유아 및 청소년의 수의 감소로 또래 집단이 형성되는데 있어서 어려워 사회적응력이 부족하고, 교육 복지면에서 열악한 환경에 처함을 느끼는 시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농촌지역사회에서 아동의 교육복지 향상과 지역사회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의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농촌지역에서 운영중인 지역아동센터(공부방)의 환경개선과 종사자의 삶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 이 논문이 조사된 공부방의 경우 다른 지역과는 달리 방학때만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공부방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지만, 상시적으로 학기중, 방학때 전부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공부방)의 경우 인적, 물적자원 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농촌지역의 경우 특히 도시와는 달리 자원연계가 어렵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이점에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둘째,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환경의 차이의 이해가 요구된다. 도시지역은 지역복지관, 지역 교육시설과 같은 인적·물적 자원 확보와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는데 농촌지역보다 수월하다. 농촌지역의 경우 교육시설이 학교외에 없는 곳도 많으며, 다행히 공부방이 운영되는 곳도 지역자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상 논의한 바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지는 한계와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한계점은 첫째, 본 연구는 방학때만 운영하는 1곳의 공부방에 참여한 아동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기에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로써 농촌지역에서 운영중인 전국조사의 필요성과 농촌지역에 있어서 유사한 환경에서 공부방에 참여하지 않는 청소년과 참여하는 아동사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둘째, 설문조사시 각 요인의 문항을 좀더 다양하게 구성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요인은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조사하기에는 요인별로 세분화되지 못했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문항으로 구성하여 요인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농촌지역에서 운영중인 지역아동센터(공부방)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에서 끝났다는 점에서 후속 연구에서는 공부방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참여하는 아동에게 사회생활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수 있는 사회적 능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요즘 아동이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종단적 연구로써 개인별로 청소년들이 시기별로 사회적 능력을 측정하여 사회적 능력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연구한다면 공부방의 교육이 농촌지역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더욱 정

확하게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후속 연구의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그밖에도 공부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매뉴얼 제작과 교육효과에 대한 검증을 통해 지역별 공부방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이는 결국 공부방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며, 변화되는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공부방의 활성화시키는 작업이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명순(1985). “빈곤상황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연구”, 아침.
- (2000). “빈곤해체가정 아동의 변화 및 사회복지통합적인 접근연구”, 강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곽동영(2000). “방과후 아동지도 실태와 발전방안의 연구”, 상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민호(1994). “한국 가족의 사회화 기능에 관한 문헌연구”, 초등교육연구 제 2 집, 제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pp.1-23
- 김성수 외(2000), 「21세기 농촌청소년 문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숙중(1998). “농촌지역 부모의 양육행동과 자녀의 사회적 특성”,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임(2001). “청소년 여가활동의 실태에 관한 연구-충청북도 농촌지역 중학생을 중심으로-”, 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자(2000). “서울,경기지역 저소득층 지역 초등학생의 공부방 활동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하(1996).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송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희(2001). “도시저소득층지역 공부방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공부방 인식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재철(1997). “농촌 가족 유형의 변화와 전망”,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재환(1996). “교회 및 기독교 단체가 운영하는 빈민지역 공부방 운영에 관한 연구”, 송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주현(1995). “도시지역 자기보호 아동을 위한 방과후 탁아프로그램의 효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구경모(2001). “도시빈민지역의 공부방에 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효정(2001). “저소득층 아동의 집단활동이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농림부(1999). 농림수산물주요통계
- 류미희(1993). “한국빈민, 공단지역의 아동, 청소년 복지사업에 관한 연구-지역사회 공부방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민은희(1998). “도시빈민지역 공부방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영근(1998). “교회 공부방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서울시 소재 빈민지역 교회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영지(2002). “방과후 아동보육 프로그램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문수 외(1998). “저소득층지역 청소년 여가문화와 소집단 활성화”, 집문당.
- 박사라(2000). “방과후 프로그램이 한부모가정 아동에 미치는 영향연구”, 한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방은령(1994). “도덕성 발달과정에 관한 자기 보고의 내용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부스리기선교회·빈민여성교육선교원(1996), 『공부방 현황 및 교육활동』, 부스리기 선교회 공부방 연합회 자료집 I, 부스리기 출판부
- 부스리기사랑나눔회(2002), 빈곤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공부방)법제화를 위한 공청회 자료집.
- 변화순·원영애·최은영(1993). “농촌가족의 변화와 지속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여성개발원
- 송영숙(1998). “가톨릭공부방 활동의 변천과정 연구 : 서울경인지역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어효은(2001). “도시빈민지역 아동의 공부방 경험과 사회적 능력의 관계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정희(1999).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교회 공부방 연구-광주지역을 중심으로”, 광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경립(2002). “아동복지법제개정에 대한 이해”, 사랑나눔으로 부스리기 만나기, 2002년 나눔기관 실무자 교육, 서울 : 부스리기 사랑나눔회
- 이경일(1998). “아동복지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복지관의 방과후 아동지도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동욱(1997). “저소득층 지역 교육운동의 정당성 확보 과정에 대한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 옥(1994).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위한 방과후 탁아 프로그램의 방향”, 「우리 탁아의 질 어디로 가야 하는가?」, 삼성 어린이개발센터 국제학술대회, pp. 109-111.
- 이주리(1994). “유아 및 아동의 가정환경 및 또래 환경과 역량 지각”,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2001). “농촌지역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대한가정학회지, 39(10), pp 141 - 152
- 이재우(2001). “농촌지역사회발전을 위한 학교 재조직화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향란(1996). “방과후 아동지도의 실태와 기관운영에 관한 연구 ; 공부방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000). “바람직한 공부방의 역할 수행을 위하여”, 부스리기선교회 실무길라잡이, pp. 9-14.
- 임상희(2002).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의 활성화 방안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장희(1999). “주거환경이 아동의 인성발달에 미치는 영향-도시지역과 농촌지역과의 비교”,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혜영(1999). “귀농자의 적응과 복지에 관한 연구”, 광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세향(1995). “저소득층 국민학생을 위한 교회 공부방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유진·권현수·김영일·김은영(1998). “빈곤가족 아동을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태화임상사회사업연구, vol 5.
- 장양숙(2000). “교회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의 사례연구와 활성화 방안”, 호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윤정(1997). “프랑스의 방과후 아동지도”, 방과후 아동지도사 전문가 워크샵 자료집, 숙명여자대학교 아동연구소.
- 정지웅·최병익(1992). 「농촌사회복지론」, 서울대학교출판부.
- 정정순(1999). “방과후 아동지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광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연순(1988). “도시저소득층 취약아동의 방과후 생활조사-중류층 취업모 아동과의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제34권 2호.
- 조흥식(2003). “참여정부의 농어촌 복지 발전과제”, 한국 농어촌사회연구소, [참여정부의 농정방향과 과제].
- 차경선(2001).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전라북도 주요 3개시를 중심으로”, 한일장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경옥(2000). “신나는 집 교육복지 활동”, 부스리기선교회 실무길라잡이, pp. 15-19.
- 한겨레신문(1996). 11월 20일자 12면
- 한국청소년개발원(2000), 21세기 농촌청소년문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한순옥(1999). “방과후 집단활동 프로그램의 참여가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효과”, 대한가정학회지, 제 38권 3호.
- 황정숙(1997). “학령기 아동의 여가선용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허인영(2002). “지역아동센터로서의 공부방:왜 지역아동센터인가”, 사랑나눔으로 부스리기만나기, 2002년 나눔기관 실무자교육, 서울 : 부스리기사랑나눔회.
- 허춘자(2002). “초등학교의 사회적 능력과 학교 부적응 행동의 비교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설문지

(학부모용)

다음 문항은 공부방에 참여한 아동의 학부모가 작성할 사항입니다. 가장 적합한 번호에 V 표 하거나 알맞은 내용을 적어주십시오.

1. 솔맹이 배움터를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2. 솔맹이 배움터에 자녀를 참여하게 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이번 7회 솔맹이 배움터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나요?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불만족한다 ⑤ 매우 불만족한다

3-1. 만족스러웠다면 어떤점이 만족스러웠는지 또는 불만족스러웠다면 어떤점이 가장 불만족스러웠는지 적어주세요.
* 만족스러웠던 점 :
* 불만족스러웠던 점 :
4. 이번 배움터의 기간 (초등학생-9일, 중학생-10일)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① 기간이 길다(기간이 짧았으면) ② 적당하다 ③ 기간이 짧다(기간이 더 길었으면)
5. 이번 배움터의 형식(공부방(1주) + 캠프(초등학생-1박2일, 중학생-2박3일) + 마무리잔치(1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불만족한다 ⑤ 매우 불만족한다
6. 앞으로 솔맹이 배움터에서 했으면 하는 프로그램이나 배움터에 대해 바라는 점 또는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